

## 한국 남자배구 월드컵 돌풍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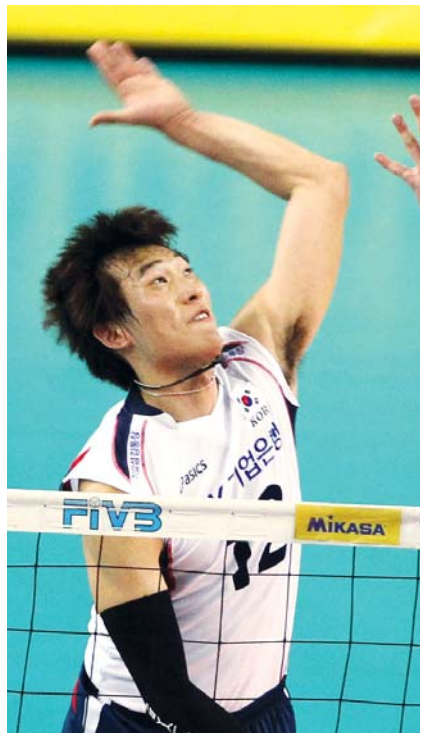
# 젊은 피 + 빠른 스피드 = 강팀 연파



전광인



최흥석



김정환

2004·2008년 올림픽에서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한 한국남자배구는 지난해 월드컵 국제남자배구대회 조별리그에서는 12전 전패를 당하는 등 최근 국제 무대에서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박기원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내세운 한국은 전통의 강호 쿠바를 제압하는 등 2011 월드컵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다.  
 한국 남자배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기가 기회가 됐다. 한국은 월드컵

### 전광인·최흥석·김정환 '신예 3총사' 중심 내일·모레 광주 염주체육관서 쿠바와 재대결

대표팀 구성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프로팀 지도자들이 대표팀 감독 자리를 고사하면서 박기원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위원이 사령탑을 맡았다.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성민(현대캐피탈)과 박철우(삼성화재), 김요

한(LIG 손해보험), 김학민(대한항공)이 부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경험 부족의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졌다.  
 우려와 달리 한국의 모험 아닌 모험은 빠른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험부족은 '패기'로 만회했다.  
 전광인(20·성균관대), 최흥석(23·경기대), 김정환(23·우리캐피탈) '신예 3인방'이 돌풍의 중심에 있다. 이들은 월드컵 대륙간 라운드 D조 4차전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40점을 합작하며 3-1 승리에 앞장섰다.

주전 거포들이 빠진 자리에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의 허를 찌르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에 박기원 감독이 추구하는 '스피드 배구'가 만나면서 한국 배구의 경쟁력이 더해졌다.

이번 대표팀의 주전 레프트 전광인과 최흥석은 193cm, 라이트 김정환은 196cm으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하기에 유리한 신장은 아니다.

박 감독은 이들의 신장 대신 빠른 발과 스윙에 주목했다.  
 박 감독은 단조로운 오픈 공격 대신 직선 토스와 한 번자 빠른 공격을 중심으로 해 조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는 난적 쿠바 상대로 한 D조 1차전 3-0 승리로 드러났다. 27년 만에 쿠바전 승리를 낚은 한국은 프랑스와의 대결에서도 '스피드 배구'의 위력을 보여줬다. 빠른 배구와 젊은 선수들의 패기에 프랑스는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18~19일 한국은 빛고를 광주에서 쿠바와의 리턴 매치를 벌인다. 컨디션 한층 끌어올린 쿠바가 설욕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선수단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있지만 스피드와 패기로 돌풍 잇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JNJ골프리조트' 10월 시범 라운딩

### 장흥 장평면·창립회원 모집

정남진골프리조트(주)가 장흥군 장평면에 건설 중인 27홀 규모의 'JNJ골프리조트'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호남 골프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정남진골프리조트(주)는 공사가 중단됐던 사업장을 인수해 지난 2월부터 집중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골프장 건설을 서둘러왔다.

총 부지는 45만4545㎡(44만 평) 규모로 현재 조경공사와 조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우수한 잔디전문 관리자(그린키퍼)를 영입, 잔디파종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인 JNJ골프리조트는 오는 10월 중 시범 라운딩에 들어가 11월 개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정남진골프리조트(주)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동반자 우대 등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JNJ골프리조트 1차 창립회원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회비는 계좌 당 5000만원(일시납부 4500만원).



1차 창립회원에게는 제주 라벤스CC의 제휴회원 대우로 한 장의 회원권으로 2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원만한 구름에 조성된 넓은 페어웨이에 양잔디를 식재한 JNJ골프리조트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사계절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광한 대표는 "지난 5월부터 창립회원을 모집한 이래 500여 명의 골프 애호가들이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대중 레저 스포츠인 골프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회원가와 그린피를 실수요자에 맞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문의 061-864-909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시원... 시원... 비치발리볼의 계절

16일 서울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2011 비치발리볼 서울 챌린지에서 스위스와 에스토니아 선수들이 네트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이윤리 장애인사격 비공인 세계신

####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이윤리(전남일번)가 장애인사격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윤리는 15일 경남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여자 R8 50m 소총 3자세에서 본선과 결선에서 각각 581점과 677.6점을 얻어 자신이 보유한 세계 기록을 뛰어넘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그의 세계기록은 본선 580점, 결선 676.9점이다.

이주희(강릉시청)는 P4 50m 권총에서 우승했고 강주영(강원일번)은 R9 50m 소총복사 SH2에서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 마지막 4차 대회는 오는 8월에 열린다. 선발전에서 뽑힌 선수들은 올해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거쳐 내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된다.

### 민속 발리댄스대회·청소년 농구대회...

## 생활체육 풍성하게 펼쳐진다

6월 생활체육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19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광주시장배 민속발리댄스대회가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 시민속발리댄스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경연을 펼친다. 유치부부터 장년부(50세이상)까지 개인 및 단체팀들의 경기가 열린다.

26일에는 클럽대학 청소년생활체육대회 농구 대회가 개최된다.

중등부 32개팀과 고등부 32개팀 등 총 320여명이 참가해 학생교육문화회관 농

구장에서 우승을 다투게 된다.

제 6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도 마련됐다.

오는 28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막이 오르는 대회는 체육마당·문화마당·장기자랑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단체 훌라우프, 지구본 율리, 박터트리기, 대형 윗놀이 등 4개 종목에서 대결을 벌인다. 지역구 초정공연도 펼쳐지며 각 구 대표들이 참가하는 장기자랑 무대가 마련돼 축제 한마당이 연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주세요!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깁시다!!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